

대설 국민행동요령

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



행정안전부

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

목차

대설 국민행동요령

01

가정에서

키워드 [안전디딤돌] [지역대피장소] [제설함]

02

외출 중

키워드 [겨울철 안전사고] [저체온증]

03

차량에서

키워드 [월동장구] [내비게이션] [고립사고]

04

농·어촌에서

키워드 [붕괴사고] [안전장구] [겨울철 출항]

01

가정에서

키워드 [안전디딤돌] [지역대피장소] [제설함]

1. 대설 위험정보를 사전에 파악합니다.

[안전디딤돌 앱]

- 앱 설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긴급재난문자 제공
- 재난뉴스, 기상정보 제공 및 위급 시 긴급신고 기능
- 민방위대피소, 병원, 약국 등 재난 안전 시설물정보 제공

-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, 가정에서 미리 위험정보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.
- 안전디딤돌 앱, TV,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설 예 · 경보를 수신합니다.

2. 대설로 인한 고립에 미리 대비합니다.

[지역대피장소 찾기]

- 국민재난안전포털(www.safekorea.go.kr) 접속
- <재난현황 - 임시주거시설> 클릭
- 검색을 통해 가까운 지역대피장소 인지

- 식수, 비상식량, 핸드폰 충전기, 휴대용 버너, 연료,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구비 합니다.
- 인근 지역대피장소를 숙지하고, 노약자 · 어린이 등 재해 약자들에게 알려줍니다.
-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은 경찰서, 관공서 및 이웃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합니다.
- 노후 가옥, 패널식 건물 등은 적설로 인한 붕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안전점검과 보강을 합니다.

3.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보행로에 내린 눈을 치웁니다.

[가까운 제설함 찾기]

- 공공데이터 포털(www.data.go.kr) 접속
- <행정안전부_제설함> 검색
- 데이터 활용하여 가까운 제설함 위치 확인

- 폭설 이 후, 내 집 · 점포 앞 보행로의 눈을 스스로 치워 가족 · 이웃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.
- 제설함의 삽, 빗자루 등으로 눈을 퍼내고 염화 칼슘, 모래 등을 뿌려 둡니다.
- 제설함 내부 소도구, 제설제가 부족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요청합니다.

02

외출 중

키워드 [겨울철 안전사고] [저체온증]

1. 강설시, 외출을 자제합니다.

[겨울철 야외 안전사고 통계]

작년 겨울, 산행 및 자전거 안전사고

각각 1,368건, 191건 발생

- 눈이 많이 올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, 외출할 경우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알려 둡니다.
- 24시간 강설량이 5cm 이상인 경우, 개인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.
-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, 장갑·모자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.

2. 눈에 젖은 채로, 야외활동을 하지않습니다.

[저체온증 통계]

- 최근 5년간, 겨울철 저체온증 환자 5,578명 발생
- 중증 저체온증의 경우, 사망률이 50% 이상

저체온증 증상

- 성인 : 몸 떨림, 피로감, 착란, 어눌한 말투, 기억상실, 졸림
- 유아 : 빨강고 차가운 피부, 축 처짐

저체온증 조치사항

- 의식 소실 시 동행자는 119에 신고합니다.
-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.
-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몸을 감쌉니다.
-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, 따뜻한 음료와 단 음식을 먹게 합니다.
-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,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 등을 먹여서는 안됩니다.
-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전까지 대화하여 깨어 있게 합니다.

03 차량에서

키워드 [월동장구] [내비게이션] [고립사고]

1. 눈이 오는 경우, 출발 전에 미리 대비합니다.

[차량 출발 전 체크리스트]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스노체인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삽 |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래주머니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염화칼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료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액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상식량 | <input type="checkbox"/> 랜턴 | <input type="checkbox"/> 담요 |

- 전기차의 경우, 출발 전 배터리를 미리 완충하고 이동경로 상 전기 충전소의 위치를 숙지합니다

2. 강설 중, 운전 시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.

[겨울철 교통사고 통계]

최근 3년간, 강설 중 교통사고 2,427건 발생하여
이로 인한 사망자 43명 발생

-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커브길, 고갯길, 고가도로 등에서 서행하고,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합니다.
- 제설작업 중 뒤편 제설제 조각과 얼음 등이 튈 수 있으므로, 주의하여 운행합니다.
- 내비게이션, 도로 전광판의 위험지역 및 도로통제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필요시 우회합니다.
- 전기차의 경우,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발 전 배터리와 도로 제설 정보를 확인합니다.

3. 차량 고립 시 대처요령을 숙지합니다.

[고립사고 사례]

`21년 폭설로 인해, 동해 고속도로 속초 - 양양 구간에서
차량 700 여 대가 7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고립사고 발생

- 긴급환자의 구급, 구난, 제설 장비 비상통로로 활용되는 갓길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.
- 매시간 약 10분동안 엔진을 켜 히터를 사용하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.
- 배기 파이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환기를 위해 차량의 창문을 약간 엽니다.
-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, 부득이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둡니다.

04 농·어촌에서

키워드 [붕괴사고] [안전장구] [겨울철 출항]

1.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 미리 대비합니다.

[눈의 무게]

습설(습기가 많아 잘 쌓이는 눈) 10cm = 물 1cm

100m²(약 30.25평) 면적, 눈 50cm = 물 5t

- 비닐하우스, 축사, 인삼재배사의 보온덮개와 차광막 및 과수원의 방조망 등은 미리 걷어냅니다.
- 비닐하우스의 경우, 하우스밴드가 느슨해져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합니다.
- 비닐하우스 및 양식장의 닻, 부자, 보호망 등의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합니다.

2. 강설 중, 대응요령 및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.

[겨울철 농 · 어촌 피해 통계]

최근 10년간,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

농 · 수산물 등 피해액은 1,586억 원

- 주거용 비닐하우스,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적설 무게에 취약하므로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.
- 높은 곳에서 제설하는 경우 안전줄, 안전모, 안전화 등 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.
-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, 지붕 제설 시 인원들을 분산하여 배치하고 건물 기둥에서 작업합니다.
- 선박 종사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운항을 자제합니다.
- 부득이하게 출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명장비를 미리 점검합니다.

05 대설 관련 정보

1. 대설 피해의 특징

- 다량의 적설에 의한 하중과 적설의 이동에 의한 압력, 충격에 의해 구조물이 파괴되는 피해 발생
- 적설이 30cm 이상이면 자동차의 소통이 마비되며, 도시에서는 5~10cm의 적설에도 교통체증 발생

2. 대설 특보 기준

대설주의보	대설경보
24시간 동안의 신적설이 5c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	24시간 동안의 신적설이 20c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(산간의 경우, 30cm)